

보도시점 : 2026. 7. 15.(수) 06:00 이후(7. 15.(수) 석간) / 배포 : 2026. 7. 14.(화)

국토부, 산·학·연 “항공안전 패러다임 전환” 논의의 장 마련

- 민·관 합동 항공안전세미나 및 포럼 개최(7.15.~16.)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급변하는 항공환경에 대응하여 항공안전 최신 정책 및 기술동향을 공유하고, 안전문화 확산과 항공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인천에서 민·관 합동으로 “항공안전세미나 및 항공안전포럼”을 개최한다.

※ 주최 : 국토교통부, 한국항공대학교

※ 주관 : 한국교통안전공단, 한국교통연구원, 대한항공

- 이번 행사는 “사람과 문화, 함께 여는 항공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”을 주제로 국내·외 항공전문가가 참여하며, 미래 항공안전 정책방향과 민·관 상호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한다.

- 첫째 날(7.15)에는 항공산업 격변기에 요구되는 항공안전 리더십을 주제로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고, 민·관의 주요 기관장과 최고경영자들이 함께 하여 ‘항공안전 리더십 메시지’를 전달한다.

- ‘말할 수 있는 조직, 함께 배우는 문화’를 주제로 공정문화와 안전보고, 조직 회복탄력성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발표에 이어,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용 가능한 Safety Intelligence*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.

* Safety Intelligence: 다양한 안전데이터를 수집, 통합, 분석하여 위해요인을 식별하고, 이를 근거로 항공안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

- 둘째 날(7.16)에는 조종사의 역량을 기반으로 훈련과 평가, 항공종사자의 경력관리 체계, AI 기반 예지정비와 드론위협 등 복합 환경변화에 대한 협력 대응을 주제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.

- 국토교통부 정채교 항공정책실장은 “항공안전은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과 문화, 안전데이터의 공유와 협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며, 이번 행사가 미래 항공안전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민·관이 협력하는 대표적인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항공안전정책관 항공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곽영필 (044-201-4244)
		담당자	사무관	김홍석 (044-201-4263)
		담당자	주무관	박소현 (044-201-4682)


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
MOVE | TOMORROW